



20th Anniversary  
YUHKI KURAMOTO CONCERT





© HaploTosudio HaYyoung

CREDIA  
ENTERTAINMENT



20th Anniversary  
YUHKI KURAMOTO CONCERT

# 유기쿠라모토 콘서트

당신과 함께한 스무번째 봄이 옵니다



## 진심 만큼

2019년 5월 31일(금) 오후 8시 | 롯데콘서트홀  
8pm Friday, May 31, 2019 at LOTTE CONCERT HALL

주최 CREDIA MUSIC & ARTISTS 후원 KOREAN AIR 50



오늘 이 공연에 발걸음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의 첫 공연은 1999년 5월 이었는데요. 객석을 가득 채워주신 관객 분들 앞에서 연주할 수 있었던 것은 상당히 인상 깊었고 또 잊을 수 없는 기억입니다. 그 이후로 벌써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매해 한국을 찾아, 서울뿐 아니라 많은 도시에서도 콘서트를 열 수 있었던 것도 전적으로 제 음악을 들어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한국을 처음 찾았던 20년 전 당시에 저는 벌써 마흔여덟이었고, 작곡하여 CD로 발매된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레퍼토리가 될 수 있는 곡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은 늦은 데뷔가 가져다 준 일종의 행운 일지도 모르겠네요. 이 20년 동안에도 새로 작곡한 곡을 포함해 많은 곡을 연주하였고, 많은 여러분들께서 들어주신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오빠’라고 불러주시는 팬 여러분들도 계셨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할아버지’가 되어버렸지만요...

오늘 프로그램은 언제나와 같이 한 곡, 혹은 두 세곡씩 연주하며 곡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며 때로는 애절하게, 때로는 즐겁게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1부에서는 여러 음반에 수록된 곡들로 구성해 피아노 솔로로 진행합니다. 인터미션 후 2부에서는 현악 앙상블을 시작으로 중반부터는 목관악기 그리고 호른 연주자 분들과 함께합니다. 다소 날카로운 음색의 피아노를 현악기가 부드럽게 감싸 안고, 여기에 목관악기의 다채로운 음색도 즐기실 수 있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콘서트를 위한 편곡도 다시 해서 새로운 악기 구성으로 처음 들려드리는 곡도 있습니다.

화제를 바꾸어, 많은 피아노 명곡을 남긴 낭만파의 거장들 중 쇼팽과 슈만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 두 사람은 같은 해인 1810년에 태어났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쇼팽은 곡 스타일로 왈츠, 녹턴, 에튀드, 발라드, 폴로네즈, 마주르카 등 곡의 형태랄까요 장르만을 규정할 뿐, 구체적인 사물의 심상을 나타내는 타이틀은 붙이지 않았죠. 이와 반대로 슈만은 특히 소품집 등에서 각각의 곡에 구체적으로 알기 쉬운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트로이메라이, 즐거운 농부, 나비 등 참 다양합니다. 그는 문학적인 묘사를 포함해 음악의 평론에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아마 쇼팽은 “음악이란 어디까지나 추상적인 것으로, 타이틀에 의해 곡의 이미지를 한정짓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고, 한편 슈만은 “구체적인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는 타이틀은 그 곡을 친숙하게 느끼게 해 듣는 이의 재미를 더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쇼팽이나 슈만의 작품과 비교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제 곡에는 구체적인 이름의 타이틀도 있고, 때로는 넓은 의미로 생각되는 타이틀도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곡 타이틀에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자유롭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의미도 포함해서, 이번 음악 감상에 참고를 위해 곡에 대한 약간의 글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각각의 영문 타이틀, 오늘의 연주형식에 가장 가까운 수록 음반명, 제가 붙인 대략적인 연대순 작품번호, 그리고 오늘 연주되는 조성을 적어두었습니다. 곡에 따라서는 음악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한 부분도 있습니다. 함께 실은 악보는 곡의 앞부분 혹은 하이라이트 부분인 경우가 많지만, 설명과 관련된 소절 부분으로 실은 곡도 있습니다. 악보가 너무 작아서 읽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시각적인 모양을 통해 여러 곡들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 곡은 잘 아시다시피 주로 서정적인 측면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피아노로 부르는 노래라고 보셔도 될 것 같네요. 멜로디가 중요한 요소로, 까다로운 부분은 전혀 없지만 하나하나 세심하게 작곡하였습니다. 또, 실내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을 위해 가장 적합한 편곡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지휘자를 모시지 않고, 부분 부분 제가 지휘해 가며 실제 오케스트라(코리아쿰 체임버오케스트라)의 통솔자는 제가 신뢰하는 악장 임경묵씨입니다.

공연하는 여러 장르의 음악회 중에서, 피아노 콘서트를 선택해 주시고 와 주신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번 콘서트의 제목을 “Cordiality(진심)” 이라고 붙였습니다. 제 진심을 나타내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의 진심’ 덕분에 이렇게 저와 함께 피아노 음악을 즐기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훌륭한 공연장에서 사람이 만들어내는 음악의 울림을 통해, 충실하고 편안한 시간을 함께 보내시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PART 1

**Prologue**

Warm Affection

연주

유키 구라모토(Pf.)

앨범명

&lt;Romance Collection&gt;

**Pianistic**

Invitation To Sweet Dream

Waltz Consolation

Graceful Waltz

(Invitation To Dress Circle)

유키 구라모토(Pf.)

&lt;Pure Piano&gt;

&lt;Piano Consolation&gt;

&lt;Piano Jewels&gt;

**Memories**

Album, Full Of Memories

유키 구라모토(Pf.)  
김경주(Vc.)

&lt;Reminiscence II&gt;

**Fantasy**

Daydream

Romance For Piano

유키 구라모토(Pf.)

&lt;Reminiscence II&gt;

&lt;Piano Nostalgie&gt;

**Nature**

Birds Around Peito Lake

Cottage For The Rabbit

유키 구라모토(Pf.)

&lt;Piano Consolation&gt;

&lt;Time For Journey&gt;

**Romance**

Meditation

Romance

유키 구라모토(Pf.)

&lt;Score of Piano&gt;

&lt;Score of Piano&gt;

**- intermission -**

## PART 2

**Cordiality**

Cordiality

연주

유키 구라모토(Pf.)  
Strings

앨범명

&lt;Reminiscence II&gt;

**Lovingly**

Lovingly

Love Song

Paris Winter...

유키 구라모토(Pf.)  
Strings

&lt;Concertino&gt;

&lt;Heartstrings&gt;

&lt;Romance\*&gt;

**Lakes**

Emerald lake

Sonnet Of Woods

Lake Louise

유키 구라모토(Pf.),  
Chamber Orchestra

&lt;Rêverie&gt;

&lt;Reminiscence\*&gt;

&lt;Concertino&gt;

Passing Through White  
Birches

Orchestra Only

&lt;OST&gt;

**Heartstrings**Pathos And Warm-  
Heartedness

Heartstrings

The Only Love

유키 구라모토(Pf.),  
Chamber Orchestra

&lt;Misty Lake Louise&gt;

&lt;Heartstrings&gt;

&lt;Misty Lake Louise&gt;

\* arranged for concerts

# PART 1

## Warm Affection

<Romance Collection>  
#200 / A major

가사가 없는 러브 송이기도 합니다. 다만, 불타오르는 사랑과는 달리, 따뜻하게 지켜보는 사랑이라고 할까요?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을 그림자 같이 지탱해주는 분위기의 곡입니다. 도중에 미묘한 울림인 감7화음의 경과구가 있고, 미묘한 마음의 상태를 표현해 보았습니다. 당시에는 드라마 BGM 중 하나로 작곡한 곡입니다. 음반 "Sceneries In Love"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 처음 녹음한 버전입니다. 당시 도쿄에 살고 있던 상하이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潘寅林 (판잉린) 씨에게 부탁하여 리허설 없이 원 테이크 (take1)에 아주 훌륭하게 연주해 주셔서 곧바로 OK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 Invitation To Sweet Dream

<Pure Piano>  
#290 / C # minor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작곡가인 피아노의 시인, 쇼팽에게 오마주한 곡이기도 합니다. 처음의 4소절은 녹턴 울림 단조조를 많이 인용하였습니다. 그 이후의 시작부에 사용되고 있는 야상곡풍의 멜로디(악보예시)는 물론 저의 창작으로, 그 원형은 제가 21살 때 이미 완성해두었습니다. 주요 테마부는 약간 팝의 인텔포로 흘러갑니다. 엔딩에서는 앞부분의 야상곡풍의 테마를 재현하고, 꿈으로 초대합니다.



## Waltz Consolation

<Piano Consolation>  
#307 / C # minor

피아노의 거장이자 작곡가인 리스트의 작품 중 <Consolation>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서정적인 가곡이지요. 이 제목에 더해 피아노의 시인, 쇼팽의 왈츠 스타일로 작곡을 해 보았습니다. 약간 대중음악적인 요소도 들어있을지 몰라도, 작곡자인 저는 진지하게 작업하였습니다. 서정적인 왈츠 작품으로는 이외에도 <Waltz No.2>나 <Waltz Romantic>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널리 이해해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 Graceful Waltz (Invitation To Dress Circle)

<Piano Jewels>  
#255 / A major

을 1월에 런던의 뮤지컬 극장에서 연극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좌석 구분 중 실제로 Dress Circle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죠. 사전에 찾아보면 2층 정면의 좌석으로 되어있는데, 정장 차림이 바람직한 특별석이라고 봐도 좋겠지요. 타이틀이 좀 길어 <우아한 왈츠> "Graceful Waltz" 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둘 다 함께 적다 보니 더욱 길어지게 되었네요. 음악 자체는 유서깊은 작법으로 작곡하였고, 그렇게 길지 않은 적당히 우아한 왈츠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공연장은 소리가 좋아 어느 자리든지 특별석일지도 모르겠네요.



## Album, Full Of Memories

<Reminiscence II>  
#363 / C major

수십 년 전에는 카메라가 귀중품이었고,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진촬영 기구가 한정적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면, 집안 사정으로 인한 이사로 인해 어린 시절 사진이 몇 장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2004년에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꽤 많은 사진이 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그림에 페이지를 넘기며 감개에 젖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소중한 추억으로 가득 찬 앨범을 보는 소중한 시간을 표현한 곡입니다.



## Daydream

<Reminiscence II>  
#212 / D ♭ major

일본어 타이틀로는 <선잠에서 깨어>입니다만, 타이틀을 그대로 영어로 하기가 어려워 처음에는 Awakening From Dozing 이라고도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꿈을 꾸는이라는 의미를 붙여서 이 곡의 타이틀은 Daydream 이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선잠이 들어 비몽사몽의 때, 일종의 도취감이 함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꿈은 대체적으로 두서 없는 스토리인 경우가 많지요. 부드러운 터치로 물어보는 듯한 멜로디로 시작됩니다.



## Romance For Piano

<Piano Nostalgie>  
#331 / B ♭ minor

실제로 본인의 로맨스가 진행되고 있을 때는 물론이고, 예를 들어 그 꿈이 구현화(즉, 연애 대상이 되는 인물이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아도, 왠지 그런 로맨스적인 것에 대한 동경을 느끼면서, 그 때의 심경을 피아노에 맡기고 싶은 상황이 있진 않으신가요? 흘러가는 것 같은 멜로디에 그리워하며 다가가는, 왼손으로 연주하는 반박 늦은 아르페지오(악보의 왼손 부분을 참조)가 보다 한층 애달픔을 더해 갑니다. 제 곡 <Piano Jewels>에도 통하는 부분이 있는 곡입니다. 멜로디나 화음은 어떤 망설임도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 사람의 감정과는 달리 주저없이 흘러갑니다.



**Birds Around Peito Lake**

‘레이크 루이즈’나 ‘에메랄드 레이크’ 등 캐나다인 록키 산맥에 실제하는 호수를 소재로 곡을 발표해 왔는데, ‘페이토 레이크’도 제목으로 사용해 보았습니다. 페이토 레이크는 전체적으로 가늘고 긴, 일부분이 별모양으로 독특하게 생긴 호수입니다. 주요 부분은 오른손이 다섯잇단음표, 왼손이 셋잇단음표를 따라 흐르는 느낌이나 움직임을 약간 표현해 보았습니다. 악보 예시 첫 부분의 소절은 인트로의 아르페지오로, 코드네임으로 말씀드리면 F#7과 C7을 번갈아 치고 있습니다. 다소 몽환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는 작법입니다. (존 윌리엄스 작곡의 영화 JAWS 속에도 상황은 다르지만 같은 화음 진행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호수의 새들도 분명 그 아름다운 대자연을 만끽하며 날고 있는 것이 분명하겠죠.

<Piano Consolation>  
#306 / B major



**Cottage For The Rabbit**

CD음반 <Lake Misty Louise>에서는 플룻·바이올린·클라리넷·첼로의 사중주로 연주하며 조성은 F major였습니다만, 오늘은 <Time for Jouney>음반에 수록된 피아노 솔로로 연주하겠습니다. 마장조의 조성으로, 사실 피아노 솔로 연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악보에 보듯 오른손으로 멜로디가 다른 화음의 일부를 연주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도, “아기 토끼들이 집에서 바깥으로 즐겁게 친구들과 함께 놀러 나갑니다. 그러다가 너무 멀리 가버린 걸까 조금 불안한 기분이 됩니다. 결국 돌아가는 길을 찾아내 다시 즐겁게 뛰어 놀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라는 스토리를 떠올리며 들어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Time For Journey>  
#273 / E major



**Meditation**

Meditation 즉, 명상하는 듯한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면 조금은 오버일지 모르겠네요. 편안한 마음으로 잠시 하늘을 올려다 보는 정도의 이미지일까요. 마음을 풀고 상쾌한 기분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은 참 좋은 일 일겁니다. 일본어 타이틀로는 <하늘로>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사실을 말씀 드리자면 <Reminiscence>음반에 수록된 사장조의 연주가 이러한 이미지에 가장 가까운 것 같습니다만, 오늘은 <Score Of Piano>음반에 실린, 중간에 다소 고조되는 버전으로 연주하겠습니다. 첨부한 악보는 기분이 가장 고양되는 부분입니다.

<Score of Piano>  
#106 / D major



**Romance**

로맨스라고 하면 설레는 마음이 이상적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역시 애달픈 마음에 더 가까운 것 같네요. 1987년에 작곡한 곡입니다. 중간에 “사~랑해~” 같이 가사를 붙일 수 있는 부분도 나오지만, 그 직후 슬며시 여기에 호응하는 세 음의 멜로디를 왼손으로 연주합니다. (악보의 첫 소절 네 박자째에서 두 마디에 걸쳐진 직선표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께서도 친숙해 하시는 곡으로, 여러 스타일(악기편성)의 편곡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피아노 솔로로 들려드리겠습니다.

<Score Of Piano>  
#083 / E minor



**PART 2**

**Cordiality**

제 자신도 지금까지 몇 번이고 사람들의 친절함이나 진심으로 도움을 받아 왔습니다. 일상생활이든 혹은 공적인 자리에서의 인사 속에서든, 감사의 말은 빠지지 않지요. 이것이 진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말이라면, 그 진실함은 반드시 전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심정을 표현하고자 단순한 선율에 맞춰 솔직한 마음의 고양됨을 그리는 음악으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노래할 수 있는 멜로디입니다. 그런데 이 멜로디는, 다장조로 칠 경우 검은 건반을 사용하지 않고 연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문적인 말로 바꿔 말하면, 멜로디의 악보에는 임시기호 #, b가 붙지 않습니다.

여기서 짧은 상식 하나를 말씀 드리자면, 요즘 각광 받는 해쉬태그 #와 음악기호 샵#은 형태적으로 수직, 수평인 선의 기울기가 다릅니다. 워드프로그램 등으로 이 소리의 기호 #을 사용한 원고를 쓰려면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플랫의 b은, 반각의 아스키 문자에는 이 플랫(b)기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래 이 플랫은 악보 작법이 정해져 있는 과정에서 다장조로 변이할 때 처음 나타나는 Bb를 b로 쓰기 때문에, 당연히 모양이 닮은 것입니다. 클래식 음악에서 독일어로 표기할 때 이런 혼동이 발생하지 않아 제가 좋아하는 서법입니다.

<Reminiscence II>  
#365 / G major



**Lovingly**

애절한 멜로디가 박자를 어떻게 잡는 지에 따라 따르겠지만, 흘러가는 것 같이 약간 빠른 템포로 노래하며 이어집니다. 도중에 현악 합주가 여기에 얽혀 가며 색을 더해 갑니다. 낮은 음은 별로 사용하지 않고, 공중에 뜬 듯한 기분의 곡입니다. 일본어 타이틀로는 <기억>으로 되어 있는데, 묵직한 무거운 기분이 아니라 사랑에 애가 타는, 공중에 떠다니는 듯한 기분을 표현한 곡입니다.

<Concertino>  
#109 / B b minor



Love Song

다정하면서 쉬운 멜로디입니다. 그렇다 해도 구성적으로는 다소 어색함을 느끼는 분도 있을 지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 사랑을 고백하려고 할 때 말로는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과 닮아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아주 옛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없었던 것 같기도 한... 이제 와서는 어렵פות하네요. 이 멜로디의 원형은 라장조 D major로 19살 때 기타로도 칠 수 있게 고안한 곡입니다. 어쨌거나 심플한 말로, 조금은 주저하듯이 곡을 진행해 가며 주위의 착한 친구들(오늘은 현악연주자분들이) 미숙한 멜로디를 따뜻하게 서포트 해 줍니다. 고마워요!

<Heartstrings>  
#204 / D ♭ major



Paris Winter...

영어제목의 Paris, Winter... 에도 있듯이 이 ... (점점) 이 흔들리는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앨범과 곡 타이틀이 복잡하지만, <ROMANCE>음반에 수록된 버전의 피아노 솔로로 현악 합주를 새롭게 더해보았습니다. 이 편성으로 연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피아노만으로 회상하는 장면과, 심플하면서 가까이 다가가는 현악을 만나는 장면이 교대로 나타나며 노래해 갑니다. 끝 없는 감정이 흘러갑니다. 또한 타이틀에 Paris라고 붙였는데, 각자의 '추억'을 배경으로 서울이든 교토든, 추억의 로맨스 장소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일년 중 가장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계절은 들고 있습니다. 각각의 계절에, 여러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첩부의 악부는 곡의 끝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의 엔딩은 미련 없이 깔끔하게 끝맺습니다.

<Romance\*>  
#046 / E ♭ minor



Emerald lake

<Lake Louise>라는 곡은 이미 많은 분들께 친숙한 곡인데요, 제가 그 호수에 실제로 방문한 것은 1995년 여름이었습니다. 당시 근처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다른 호수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에메랄드 레이크로, 문자 그대로 에메랄드 색의 호수였죠. 명칭과 실제의 정경이 매우 어울려서, 수많은 아름다운 호수 중에서도 특히 독특한 분위기를 보입니다. 첩부하는 악보는 인트로 뒤에 이어지는 멜로디입니다. 왼손의 셋잇단음표로 Barcarole(벚노래) 적인 분위기를 나타냅니다. 곡은 평온하게 노래하며 진행되지만, 도중부터 고양되며, 다시 원래의 멜로디로 노래합니다. 캐나다의 호수를 주제로 한 두 번째 곡입니다.

<Rêverie>  
#233 / G major



Sonnet Of Woods

이 곡은 움직임이 있는 작품에 속합니다. 아르페지오를 타고 막힘 없이 흘러가는 멜로디처럼 이어지는 곡을, 유키구라모토 작품에서는 '-의 소네트'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소네트란 유럽의 정형시를 가르킵니다. 긴 역사와 변천이 있는 단어라서 한마디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기교파의 피아니스트이기도 한 작곡가 리스트의 곡에 페트라르카의 소네트라는 곡이 있어서 이를 뒤따르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은 현악 앙상블이 피아노를 서포트 해 주는 새로운 편곡을 하였습니다.

<Reminiscence\*>  
#102 / G # minor



Lake Louise

캐나다 록키산맥의 보석이라고도 불리우는 아름다운 청정의 호수 레이크 루이즈. 저도 세 번 정도 방문한 적이 있고, 그 아름다움을 만끽하였습니다. 그 호수의 이름을 타이틀로 붙인 이 곡은 1986년에 처음 발표하였습니다. 그 후 조금씩 세계 여러 나라에 퍼진 것은 작곡가로서 매우 기쁜 일입니다. 상쾌하고 기분 좋은 피아노적인 멜로디 등, 저도 특히 마음에 드는 곡입니다. 그 이후 오케스트라나 독주 현악기 등과 함께 여러 스타일로 녹음하였습니다. 최근에는 D major로 바이올린과 듀오 버전을 연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오늘은 실내 관현악 반주와 함께 A major 1986년 버전으로 연주하겠습니다. 악보는 약 2/3 지점을 지나, 고양되는 부분을 넘어 목관악기가 주된 테마로 나오기 전 부분입니다.

<Concertino>  
#047 / A major



Passing Through White Birches

일본어 타이틀로 '자작나무 숲을 지나'입니다. 러시아에서도 촬영을 진행한 어느 드라마(NHK-BS 1997年)를 위해 작곡한 곡입니다. 작곡가로서의 의도는 러시아적인 우수를 느끼실 수 있는 멜로디인데요. 움직임이 있는 현악 합주의 반주에 오보에 같은 목관악기가 멜로디를 노래합니다. 도중에 호른과 클라리넷으로 연주하는 중간부를 거쳐, 처음 멜로디를 반복합니다. 드라마에서는 느린 템포의 플룻 멜로디로 한 별도의 편곡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실내 오케스트라 멤버 여러분들이 들려 주시는 연주입니다.

<OST>  
#176 / F # minor



## Pathos And Warm-Heartedness

<Misty Lake Louise>  
#247 / F # minor

1998년 NHK금요 시대극을 위한 음악 중 하나입니다. 에도시대 설정 속에서 인정과 파토스를 가득 담은 홀 드라마입니다. 타인의 인생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결국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즐거이에서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전반에 불리는 '인정'의 테마, 그리고 도중에 '파토스' 테마, 그리고 약간 동요풍의 멜로디를 거쳐, 끝 부분에는 '인정'테마와 '파토스' 테마가 합쳐서 연주됩니다. 그 부분을 악보로 나타내었습니다. 오른손이 '인정'의 테마에 왼손부분이 주로 '파토스'의 테마입니다. 인정의 맛을 느끼실 수 있길 바랍니다.



## Heartstrings

<Heartstrings>  
#296 / B ♭ minor

이 음반의 타이틀 이름이기도 한 Heartstrings 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마음의 선' 혹은 금선(琴線: 거문고의 줄로 일본어에는 '마음 속 깊이 간직한 진심'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역자 주) 이라고 합니다. 음악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느낀 온정, 배려있는 행동,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깊은 애정'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겠죠. 감상적이면서도 막힘 없이 흘러가며 노래해 갑니다. 도약하는 음정이 많이 담긴 단조 멜로디의 주요 부분과, 장조로 전조되어 완만한 멜로디의 중간부를 갖고 있습니다. 악보와 같이 왼손의 저음인 점사분음표는 점차 아래로 진행되는 기조입니다. 이 곡에 관해서는 역시 현악합주의 금선이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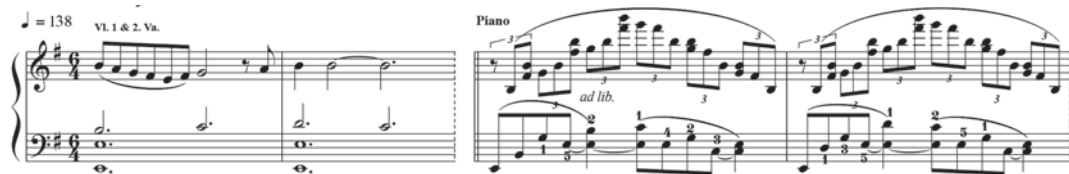


## The Only Love

<Misty Lake Louise>  
#343 / E minor

2012년에 전곡을 오리지널 곡으로 제작한 뮤지컬 <폭풍의 언덕>의 주제곡입니다. 문학 작품을 테마로 <사랑을 관찰하는 것>을 노래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량한 대지, 휘몰아치는 바람, 교차하는 사랑... 등 격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공연에서 훌륭한 가수분들이 감동적으로 노래한 것이 잊혀지지 않네요. 원래는 '노래'이냐, 고금의 명곡이 그러한 것처럼, 일단 가사에서 벗어나 다소 추상화 된 기악곡으로 들어도 음악으로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곡으로 작곡하였습니다. 악보 앞부분 두 소절은 테마 멜로디에 이어지는 악보는 같은 부분을 피아노가 아르페지오로 분위기를 고양시키는 부분입니다.





## 유키 구라모토

## YUHKI KURAMOTO

Pianist, Composer &amp; Arrangement

1951년 사이타마현 우라와시에서 태어난 유키 구라모토는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음악적 재능을 발휘하였다. 학창시절에는 라흐마니노프와 그리그 등의 피아노 협주곡에 심취하여, 아마추어 교향악단에서 독주자로 활동하는 등 피아니스트로서 실력을 인정받았다.

유키 구라모토는 일본의 명문 도쿄공업대학에 진학하여 응용물리학을 전공하면서도 연주자로서의 활동을 병행하였다. 응용물리학 석사학위를 받은 후 음악가와 학자의 선택의 기로에서 그는 음악가의 길을 선택하였고, 연주는 물론 클래식 작곡과 편곡, 그리고 팝 음악 연구에 몰두했다.

1986년 유키 구라모토는 첫 피아노 솔로앨범 <레이크 미스티 블루(Lake Misty Blue)>를 발표하였는데, 수록곡 중 '레이크 루이즈(Lake Louise)'가 크게 히트하면서 데뷔에 성공하였다. 이후 영국 런던 필하모니와 협연한 앨범 <Refinement 리파인먼트>를 발표하여 높은 음악성으로 평론가들의 극찬을 받는다. 구라모토는 음반 발매 이외에도 아사히TV의 '호텔', NHK의 '한번 더 키스(쿠보즈카 요스케, 윤손하 주연)' 등의 드라마와 영화 음악에도 참여하였다. 그의 음악은 케이블TV, 레이저 디스크 등의 영상음악뿐만 아니라 일본 항공 등 항공사의 '인 플라이트 뮤직(In Flight Music)'으로도 각광받아 왔다.

또한 한국에서도 1999년 예술의전당 콘서트 홀에서 개최된 첫 내한공연이 매진을 기록한 이후, 2018년까지 매년 내한공연에서 서울 공연 전석 매진을 기록하는 등 가장 사랑받는 피아니스트로 자리잡게 된다. 더불어 2004년 일본 레코드대상 특별상을 수상했으며, 2006년 6월에는 일본 음반데뷔 20주년 전국 투어를 펼쳤다. 유키 구라모토는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조수미', '신승훈' 등 한국 음악가들과도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2009년 3월과 11월에는 한국 공연데뷔 10주년을, 2014년 3월과 10월에는 한국 공연데뷔 15주년을 기념하는 전국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2011년 7월에는 처음으로 뮤지컬 음악 작곡에 도전하여 일본창작 뮤지컬 <폭풍의 언덕>의 전곡을 작곡, 그의 음악성이 다시 한번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또한 여수 엑스포 2012에서 일본관의 모든 파빌리온의 음악을 작곡, 연주하였으며, 아름다운 자연의 영상에 어울리는 오케스트라 음악을 선보이는 등 폭 넓은 음악성을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주었다. 2015년 9월에는 레이크 루이즈 발매 30주년 기념 공연이 있었다. 2009년부터 매년 전석 매진의 행렬을 이어오는 크리스마스 콘서트 <유키 구라모토와 친구들>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 코리아쿱오케스트라

## KOREA COOP Chamber Orchestra

2014년 10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단체로 전문 연주자들이 협동조합의 가치를 토대로 창단된 오케스트라이다. 높은 수준의 연주력을 유지, 연주자들에 의한, 연주자들을 위한 오케스트라를 추구하고 있다.

2014년 창단과 동시에 참여한 “라 스칼라” <아이다1963>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2015년부터 포은아트홀 마티네콘서트를 고정으로 참여하고 있고 머니투데이 음악회, CBS <아름다운 열정>, 유니버설 발레단 <오네긴>, 국립현대무용단 <쓰리볼레로>, 국립오페라단 <루살카>, 오페라 <라 보엠>, <가면무도회>, <일 트로바토레>, 베를린 코미세오퍼 <마술피리>, 국립합창단 <베르디 레퀴엠> 등 정통 클래식 공연에 참여하였다.

또한, 필름콘서트인 <픽사 인 콘서트>, <미녀와 야수 인 콘서트>, <스타워즈 인 콘서트>, <드림웍스 인 콘서트> 같은 클래식한 영화음악 공연에서도 활발한 연주활동을 하고 있다.

코리아쿱오케스트라는 매년 90여회의 다양한 공연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오페라, 발레 공연에서 좋은 평가를 듣고 있다.



가장 완벽한 Wellness 공간으로 초대합니다.

휴식, 그 이상의 가치

## PARK ROCHE

Resort & Wellness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웰니스 관광 33선' 선정

482, Sugam-ri, Bukpyeong-myeon, Jeongseon-gun, Gangwon-do  
T +82 33 560 1111 | www.park-roche.com | @park\_roche



# 사랑해준 한국에 제 진심을 전합니다

글/류태형\_대원문화재단 전문위원, 음악 칼럼니스트

조선 백자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을 설파한 일본인이 있었다. 미술 평론가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 1889~1961)다. 그는 무심한 도자기에서 참다운 아름다움을 느꼈다며 ‘타력의 미(美)’란 말로 설명했다. 인위적이고 의식적인 가식적인 화려함보다는 때로는 피로한 일상 속에서 몰두한 무념의 작업, 무심한 작업의 소산이기에 가능한 아름다움이었다고 주장했다.

조용히 한국인의 마음을 사로잡아온 일본의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가 있다. 아시다시피 유키 구라모토다. IMF 이후 누구보다도 치유가 절실했던 한국인들에게 손을 내밀었던 건 그의 간명한 피아노 선율이었다. 언제부터인가 유키 구라모토의 앨범이 거리의 레코드숍(당시만 해도 오프라인 음반점이 많았다)마다 걸리기 시작했다. <Reminiscence>, 즉 ‘회상’이란 타이틀을 달고 1998년 첫 상륙한 유키 구라모토의 음반이었다. 실의에 빠져 있었던 한국인들에게 좋은 시절의 회상은 희망이었고 가슴 아픈 시절을 돌이켜보는 카타르시스였다.

중처럼 맑게 울리는 그의 음악은 한국인의 심금을 건드렸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파산의 아픔을 겪으며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중한 위로였다. 그의 건반에는 영킨 실타래를 푸는 힘이 있었다. 짐을 내려놓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열쇠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았다.

이후 달밤 해변의 부드러운 파도처럼 유키 구라모토의 후속타가 조용히 밀려들었다. <Second Romance>가 히트한 뒤 ‘Lake Louise’의 감동이 잔잔한 여운을 자아내는 <Lake Misty Blue>(1999) 등의 발매가 이어졌다.

## 매사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자세, 최선을 다하는 음악

설산 속 에메랄드빛 루이즈 호수는 캐나다 밴프에 있다. 캐나다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신혼여행지 순위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는 낭만적인 장소다. 이 루이즈 호수의 산책로는 가장 걷고 싶은 길로도 꼽힌다. 에메랄드빛 호수 옆에 침엽수림 속 흙으로 된 단정한 오솔길이 펼쳐진다. 유키 구라모토가 그대로 음악으로 옮긴 루이즈 호수는 하나의 이상향으로 자리 잡았다. 시리도록 차게 빛나는 건반의 고음은 역설적으로 따스한 뒷맛을 남긴다.

유키 구라모토의 첫 내한공연이 1999년이니 올해 한국 데뷔 20주년을 맞는다. “갓난아기가 성인이 되는 시간 동안 한국에서 콘서트를 계속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는 유키 구라모토는 이 모든 게 다 한국 팬들 여러분 덕분이라고 감사의 말로 소감을 전했다. 20년 전 첫 내한공연에 대해 그는 “예술의전당에서 열화와 같은 한국 팬들의 박수 속에서 연주했다”고 기억했다.

유키 구라모토의 본명은 기타노 미노루(北野實)다. 1951년 9월 10일 사이타마현 우라와시에서 태어났다. 어릴 적부터 피아노를 치기 시작해 라흐마니노프, 그리그 등 작곡가들에 심취했다. 처음부터 음악을 전공하지는 않아 도쿄공업대학에서 응용 물리학 석사 학위를 받았지만, 대학 재학 중에도 음악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아 대학 오케스트라에서 솔리스트를 담당했다. 졸업 후에 응용물리학자와 피아니스트, 두 갈래 길 앞에서 고민하다가 피아니스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2006년 8월 15일, 도쿄 이케부쿠로의 도쿄예술극장에서 유키 구라모토의 고전 음악 연주를 들어보는 진기한 기회를 얻었다. 한국 지휘자 오충근이 지휘하는 도쿄 필하모닉의 연주회에 유키 구라모토가 솔리스트로 참가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일본인 아티스트를 골랐다는 주최 측의 설명에 납득이 갔다. 그때나 지금이나 유키 구라모토가 한국에서 가장 인기 높은 일본인 연주자임에는 변함없으리라.

유키 구라모토는 ‘루이즈 호수’ ‘파리의 겨울’ ‘버진 로드’ 등 자신의 히트곡을 소개하는 한편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1악장을 연주했다. “정통 클래식을 연주하는 것은 프로 음악가가 된 이후 최초”라고 했던 유키 구라모토는 “라흐마니노프는 내가 좋아하는 작곡가라 악보 연구를 많이 했다. 학생으로 되돌아간 듯 설렌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만난 그에게 한국에서 밀리언 셀링을 기록한 인기의 비결을 물었다. 그는 “글쎄요, 오히려 제가 묻고 싶은 부분입니다. 한국인들이 감성이 풍부해서 제가 추구하는 음악을 이해해주고 그 맛을 알기 때문이 아닐까요?”라 반문했다.

이날 협연은 효과적이었다. 유키 구라모토의 협연은 한국 지휘자와 일본 오케스트라 사이의 긴장감을 풀어주었다. 한국에서 들려오던 귀에 익숙한 맑은 멜로디들이 일본 팬들의 가슴을 노크했다. 리허설 때 불안했던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2번 1악장에서도 유키 구라모토는 정성을 다하는 성실한 연주로 무사히 협연을 마쳤다. 자신의 협연이 끝난 뒤에도 지휘자에게 인사하기 위해 기다리는 유키 구라모토의 모습을 보고 매사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자세에 감명받았다.

유키 구라모토는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일이 있는 평일에는 아침 10시부터 피아노를 활용해 연습이나 편곡을 한다. 컴퓨터를 활용하긴 하지만 악보를 준비하는 작업 등이 꽤 시간이 걸려서 밤 8시까지의 금방이다. 잠을 때는 밤늦게 새벽까지 작업을 하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일찍 잔다고 했다.

이렇게 꾸준한 창작 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유키 구라모토가 CD에 녹음했거나 콘서트에서 연주한 저작권 등록 작품은 300곡에 이른다. 꽤 다작이지만 찾아오는 영감으로 저절로 쓰이는 건 아니다. 그는 작곡에 앞서 이미 존재하는 명곡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멋진 풍경이나 인상적인 사람과의 만남에서 감동을 받아서 마음이 움직일 때 곡 작업을 한다. 여행은 유키 구라모토의 음악에 특유의 색채감을 불어넣어준다. 네덜란드와 벨기에 여행이 인상적이었다는 그는 좋은 공기와 해방감은 영감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행이 자신의 소확행이라고 말한다. 꼭 시간을 내서 1년에 한 번은 유럽 등을 여행한다.

“제 자신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제 음악을 한국의 여러분께서 소중히 간직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선한 표정의 유키 구라모토가 말한다.

유키 구라모토의 콘서트를 보면 그가 관객을 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곡 제목을 한국어로 설명하는 데도 각별히 신경을 쓴다. 그는 “아직 부족하지만, 적어도 제목이나 간단한 해설은 관객 여러분께 한국어로 말씀드려서 직접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말한다. “콘서트에서 연주하는 곡을 알려드려야 관객 여러분들이 마음 편히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고려해서 곡 제목 등을 한국어로 직접 설명해드리고 있다”는 유키 구라모토의 얘기다. 관객을 위하여 소통을 중시하는 그의 태도는 많은 아티스트들에게 귀감이 될 만하다.



## 잔잔하고 고요한 동양적 애상의 음악

벗겨진 머리에 흰 턱수염, 평범한 외모에 멧쩍은 듯한 부드러운 미소가 잘 어울린다. 유키 구라모토의 음악은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파급력을 지닌다. 명료하고 간명하게, 잔잔하고 고요한 동양적 애상을 흘리는 그의 피아니즘은 때로는 자극적인 음악 이상의 중독성을 띤다.

복잡한 구조를 제시하지 않는 음악이다. 음 하나, 선율 몇 마디로 알기 쉽게 이야기한다. 동양적인 접근이다. 진한 말차 같다. 순수한 외관의 모습. 어떠한 쇼맨십도 없이 음악의 싱그러운 맛으로만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는 진실성이 유키 구라모토의 힘이다. 내용물의 질과 상관없이 외형적인 포장 여부에 따라 가치가 매겨지는 시대다. 도처에서 설치는 쇼맨들이 피로감을 선사하는 요즘, 잔재주 없이 진심으로 승부하는 유키 구라모토의 음악에 깔린 우직한 성실성이 더욱 빛을 발한다.

<Reminiscence> <Second Romance> <Lake Misty Blue> 뒤에도 유키 구라모토의 음반들은 한국에서 환영받았다. 잔잔한 수면을 가르고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피아노의 궤적을 그린 <Sailing in Silence>(2000)와 TV 드라마 삽입곡들을 중심으로 엮은 <Sceneries in Love from TV Drama Soundtrack>(2001),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느낀 객수를 오롯이 피아노로 그린 <Time for Journey>(2002), 다시 한 번 오케스트라와 재회한 <Concertino>(2003), ‘공기 청정 기능을 탑재한 건반’이란 평을 들었던 <Pure>(2004), 심금을 울리는, 오케스트라와의 세 번째 조우 <Heartstrings>(2005), 보석같이 세공한 피아노 솔로 <Piano Jewels>(2006), ‘Lake Louise’의 새로운 버전이 담겼던 <Piano Affection(Memory of Love)>(2009)을 발매하며 2000년대를 마감했다.

이후 스트링 앙상블과의 협연작만을 엄선한 <Romancing Strings: Anthology>(2011), 한 편의 여행 에세이 같은 감성 여행 <Reverie(꿈의 참가에서)>(2012), 따스한 피아노의 위안을 추구한 <Piano Consolation>(2013), 피아노 솔로 컬렉션인 <Scores Of Piano>(2014), 비올라 스타인 리처드 용재 오닐과 함께한 <The Romantist>(2014), 현악 앙상블과 녹음하고 DSD 마스터링한 <Heartstrings Again -Memory Of Love>(2014), ‘Lake Louise’ 발매 30주년을 기념해 한국에서 녹음한 <Misty Lake Louise>(2015), <Reminiscence> 발매 20주년을 기념한 <Reminiscence 2>(2018) 등도 꾸준한 사랑을 받았다.



© studiobo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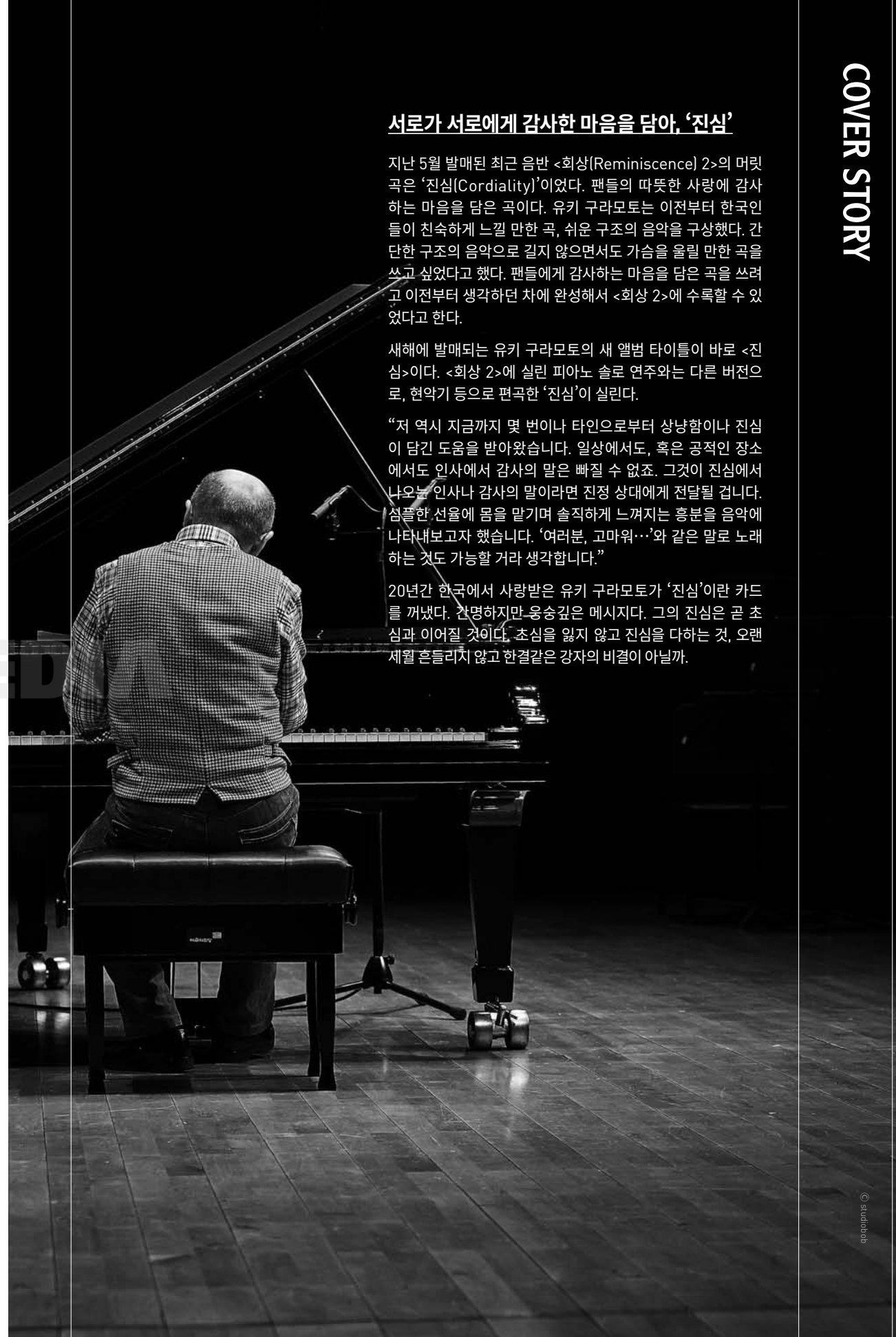
##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진심’

지난 5월 발매된 최근 음반 <회상(Reminiscence) 2>의 머릿곡은 ‘진심(Cordiality)’이었다. 팬들의 따뜻한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곡이다. 유키 구라모토는 이전부터 한국인들이 친숙하게 느낄 만한 곡, 쉬운 구조의 음악을 구상했다. 간단한 구조의 음악으로 길지 않으면서도 가슴을 울릴 만한 곡을 쓰고 싶었다고 했다. 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곡을 쓰려고 이전부터 생각하던 차에 완성해서 <회상 2>에 수록할 수 있었다고 한다.

새해에 발매되는 유키 구라모토의 새 앨범 타이틀이 바로 <진심>이다. <회상 2>에 실린 피아노 솔로 연주와는 다른 버전으로, 현악기 등으로 편곡한 ‘진심’이 실린다.

“저 역시 지금까지 몇 번이나 타인으로부터 상냥함이나 진심이 담긴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일상에서도, 혹은 공적인 장소에서도 인사에서 감사의 말은 빠질 수 없죠. 그것이 진심에서 나오는 인사나 감사의 말이라면 진정 상대에게 전달될 겁니다. 심플한 선율에 몸을 맡기며 솔직하게 느껴지는 흥분을 음악에 나타내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고마워...’와 같은 말로 노래하는 것도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20년간 한국에서 사랑받은 유키 구라모토가 ‘진심’이란 카드를 꺼냈다. 간명하지만 웅숭깊은 메시지다. 그의 진심은 곧 초심과 이어질 것이다. 초심을 잃지 않고 진심을 다하는 것, 오랜 세월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은 강자의 비결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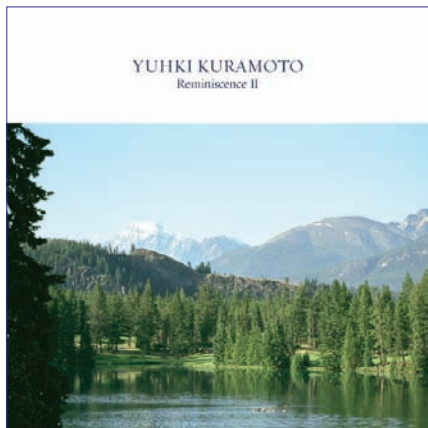




© SangWook Lee

## 아름다운 멜로디로 다가오는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 사랑과 감사의 의미를 담은 최신 피아노 솔로 앨범 [회상 II]!

New Album



### YUHKI KURAMOTO [Reminiscence II] 유키 구라모토 [회상 II]

로맨틱한 선율을 담은 따스한 피아노 연주로 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 1998년 발표 이후, 수많은 음악 애호가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국내 첫 앨범 [회상]의 발매 20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피아노 솔로의 감동적인 울림을 전하는 작품인 [회상II]. 한국 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Cordiality(진심)〉을 비롯, 12곡의 아름다운 멜로디가 펼쳐지며 서정적인 감동을 남긴다.

“유키 구라모토는 20년 동안 줄잡아 40장 이상의 음반을 발매하며 파스텔 톤 물빛 피아노의 서정주의자로 자리매김했다. 날이 갈수록 그의 인기는 결코 식지 않는다. 미세면지가 늘어난 요즘 그의 음악이 맑은 공기처럼 더 그리워진다. 유키 구라모토의 음악은 귀로 듣는 공기청정기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류태영 (대원문화재단 전문위원, 음악 칼럼니스트)

## 리처드 용재 오닐이 연주하는 유키 구라모토

### [로맨티스트] 리패키지 앨범, 한정판 LP로 발매!

리처드 용재 오닐 한국 데뷔 15주년, 유키 구라모토 내한 20주년 기념  
한국 팬들에게 선물하는 신곡 'Cordiality (진심)' 수록,



#### SIDE A

- 1 Cordiality (진심) / 타이틀곡
- 2 Swan Song
- 3 Romance
- 4 Meditation
- 5 Two With The Same Soul
- 6 Warm Affection

#### SIDE B

- 7 Lake Louise
- 8 Second Romance
- 9 Pathos And Warm-Heartedness
- 10 Graceful Waltz
- 11 Phantom Of Love
- 12 아리랑

\* 전체 트랙 리마스터링, 'Cordiality' 피아노 악보 수록!

“유키 구라모토의 곡에는 음악에 빠져들게 하는 강렬한 서정성이 있습니다. 작곡가와 직접 연주할 기회가 흔치 않은데,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어 행복합니다.”

- 리처드 용재 오닐

“길지 않으면서도 가슴을 울릴 만한 곡, 팬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곡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 유키 구라모토



## The Class Hyosung

더클래스 효성은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는다는 철학을 지닌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선택한 공식딜러입니다. 효성그룹이 심혈을 기울여 설립한 더클래스 효성은 안정적이고 차별화 된 서비스, 끊임없는 투자와 신뢰를 바탕으로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만의 퍼스트클래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Mercedes-Benz

**더클래스 효성** 전시장 : • 강남대로 02) 575-7500 • 송파 02) 3434-4000 • 분당정자 031) 786-6000 • 안양평촌 031) 689-8900 • 구리 031) 579-0900  
 • 용인수지 031) 5183-9200 • 스타필드하남 031) 8072-8900 • 청주 043) 299-9000 • 천안 041) 620-7000 • 인종 중고차 죽전 031) 786-6171  
 서비스센터 : • 강남대로 02) 570-1111 • 서초 02) 3488-2400 • 도곡 02) 575-7340 • 송파 02) 2152-3333 • 죽전 031) 786-6100  
 • 안양평촌 031) 689-8989 • 용인수지 031) 290-3700 • 청주 043) 299-9090 • 천안 041) 620-7070 • 구리 031) 579-0970  
 고객센터 : 1899-0808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C 220 d AV (배기량: 1950cc, 공차중량: 1,650kg), 복합연비: 14.4km/ℓ (도시연비: 13.2km/ℓ, 고속도로연비: 16.3km/ℓ), 등급: 2등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131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써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감사했던 50년을 넘어 보답하고 싶은 50년을 향해

지난 50년,  
함께 해주신 고객님께 감사하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대한항공이 되겠습니다





CREDIA Music & Artists 에 의해 창작된 프로그램북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3.0 Unported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REDIA Music & Artists 의 저작물에 기초, 이 라이선스의 범위를 넘는 이용허락은  
CREDIA Music & Artists 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온라인 프로그램북 서비스는 크레디아 페이지([www.credia.co.kr](http://www.credia.co.kr))에서 제공됩니다.

This e-book is exclusively provided by CREDIA Music & Artists

[www.credia.co.kr](http://www.credia.co.kr)